

도치오 데마리

‘데마리’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놀이 도구이자 장난감 중 하나로, 근래에는 전통 공예품의 장식품으로서 소중히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나가오카 교외의 도치오 지구에는 손수 만드는 전통을 지닌 ‘데마리’를 계속 지키며 이어가는 숙련된 장인들이 있습니다.

데마리는 크기도 작고 무늬도 전부 다르며, 지금도 하나하나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골프공 정도의 크기이며, 가장 큰 것은 축구공 이상의 크기입니다. 데마리 심지에는 전통적으로 큰 누에고치에 칠복신과 관련된 7종류의 상서로운 나무 열매를 넣어서 흔들면 달그락거리며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초봄에 수확되는 산나물인 고비의 숨털실로 심지를 감싸고, 각양각색의 실로 단단히 묶습니다.

데마리의 표면은 명주실을 몇 겹이나 겹쳐 감은 것으로, 다양한 무늬와 디자인을 표현합니다. 이 지역은 옛날 누에농사와 방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손상된 실이나 자투리 실을 이용해 데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데마리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크기와 무늬에 따라 다르지만, 2시간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전통적인 무늬로 ‘12승 무늬’가 있습니다. 에치고(현재 니가타현)에서는 12를 상서로운 숫자로 여겼습니다. 12승 무늬의 데마리는 쌀 양을 재는 도구인 되(升)를 상서로운 숫자에 접목하여 12개를 그렸으며, 아이들이 음식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도치오 데마리는 전문성이 높은 예술입니다. 현재 데마리를 만드는 ‘도치오 데마리 모임’의 활동 멤버는 32명에 불과합니다. 멤버의 대부분은 고령자입니다. 도치오 데마리의 전통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1983년에 결성되었습니다.

데마리에는 일반적으로 놀이용 공과 장식용 공 2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용 공으로 놀지만 장식용 공은 상서로운 물건으로 보통 집 안에 장식해 둡니다. 2가지 모두 똑같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해야 합니다. 현지의 장인들은 데마리를 만들기 전에 많은 무늬 중에서 어떤 무늬를 사용할지 생각합니다. 무늬에 따라 전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선물용으로 데마리를 선택할 때는 무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과 대나무 무늬는 장수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무늬는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정년퇴직과 같은 인생의 전환점에 선물합니다. 매화를 모티브로 한 홍백의 꽃무늬도 인기가 있습니다. 봉오리가 핀 무늬는 출산 축하 선물로 인기가 있습니다.

현재 도치오 데마리 모임은 데마리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임 멤버의 보살핌 아래 도치오의 초등학생들은 직접 데마리를 만드는 기술을 배웁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새롭게 동참함으로써 도치오 데마리가 지역의 전통으로 영원히 계승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